

불교가 부산항 위상 높였다

국제항만협회 총회 참가자, 범어사에서 다도 등 불교문화체험에 호평

세계 항만들의 올림픽인 제27차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에서 한국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5월 24일 IAPH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IAPH 회원과 동반자 등 500여 명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의 공식 만찬 장소로 선정된 범어사의 건축양식과 불교문화재를 감상하고 한국 차문화를 체험했다.

범어사 다도회는 박물관 앞마당에 마련한 찻자리에서는 햇녹차와 말차, 연잎차, 흑주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차와 함께 적제떡과 호박떡, 숙떡 등을 차려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원더풀"이라며 한국 차와 음식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외국인들은 찻사발에 담긴 말차



IAPH 총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범어사 다도회가 마련한 차를 받고 있다.

가루를 다술로 거품을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차를 대접하는 정성어린 손길에 감동을 받고, 처음 맛보는 향기로운 차의 맛과 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범어사는 많

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부산시민들의 안식처이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찰이 종교시설로 한정돼 인식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행사는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소통하고, 사찰 교육

의 문화 자원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통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범어사에서의 공식만찬과 한국 불교문화체험 외에도 김치 만들기, 오페라 '춘향전'과 한복 패션쇼, 한복 입기 체험, 전통 예술 등 우리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알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국제 항만분야에서 부산항과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항만협회(IAPH)는 1955년 미국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항만 관리 관계자 국제기구로 현재 90개국 346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부산 총회에는 60여 개국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자승이에요!"

홍법사, 제1회 동자승가족체육대회 성료

홍법사 역대 동자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1회 동자승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자승 단기출가를 수료한 1~6기 동자승 어린이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체육대회 하루 전, 동자승 어린이들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은사인 심산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사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박지원 기자

고려불화의美的원색 동아대博, 명사특강

동아대 박물관은 이전개관 2주년을 맞아 5월 13, 27일 부민캠퍼스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일상 속 불교미술의 세계"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서 정우택 교수는 석가여래계불화와 아미타여래계, 비로자나계불화 등 고려불화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고려불화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朱), 녹청(綠靑), 군청(群靑)의 삼색을 기본으로 안료의 원색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혼합해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면구성 요소의 자기주장과 역제의 교묘한 조화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은 결국 조화의 미이며 그것은 곧 고려인들의 정서였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말했다.

최유진 관장은 "통일신라가 금속공예의 근간을 이뤘던 시기라면, 고려시대는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형태 등으로 변화 발전된 시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조자를 찾아서

연극으로 '자타불이' 실천하는 대승보살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햇빛연극단'

사회복지법인 불교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용호햇빛연극단이 대박을 터트렸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용호햇빛연극단(단장 박동민)'은 제29회 부산연극제 부대행사인 제4회 부산시민연극제에서 4개의 상을 휩쓸었다.

'용호햇빛연극단'의 명칭은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로 접근해 밝고 따스한 빛을 전하자는 뜻이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의 기회확대를 위해 2005년 7월 처음 창단했다. 부산 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역민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됐다. 무대에 올리는 대부분의 작품은 관람료가 없다. 대신 제작비와 무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며 문화적 충족감을 채워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겨준 창작극 '진짜 춘향전'은 성춘향의 어머니인 기생 월매와 분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연극이다. 기획, 연출, 무대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외부 전문인의 도움 없이 용호햇빛연극단이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의상 및 기타 소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공연장에서 무대 준비와 이동, 뒷정리까지 연극단원들이 해냈다.

배우들은 연극을 '보시'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적극적인 보시의 결과 이번 연극

제에서 단체 부문에서는 금상(부산광역시장상)을 시상했다. 개인 부문에는 우수연기자상에 전선자(이도령役)·안숙화(성춘향役), 장려상에 손문희(방자役) 단원이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내 작은 복지관에서 태동한 '용호햇빛연극단'은 현재 부산지역 여러 복지관과 지역 축제 등 더 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연산정신병원이나 울산티점의 큰 무대에서 노인학대에방구 '새는 동지에서 날개 짓을 배우다' 등을 무대에 올릴 때면 보람이 더욱 크다.

박동민 단장은 "연극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무대에 오를 수도, 객석에서 즐길 수도 있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일 뿐이다. 단원들에게 항상 적절한 연기지도와 배우의 노력만 있으면 기성 배우 및 작품 못지않게 훌륭한 연극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일러 준

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우리 극단만의 고정 레퍼토리를 만들어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명소인 이기대에 갖든 설화를 소재로 한 연극대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만들어 지역 예술 발전이 곧 세계적 예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도 밝혔다.

이춘성 관장은 "단원 모두 자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순수 시민들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들에게 환한 마음을 전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며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타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는 '자타불이'의 이치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이라고 말했다. '용호 햇빛 연극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극의 기초와 연기 실습, 작품 연습 등이 진행 중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010-2215-0373 박지원 기자



재가자도 안거로 수행생활을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는 5월 23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재가 안거 수행결사'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재가 안거 수행결사'는 안거 90일간 일상생활 가운데 스스로 '수행 약정서원'을 세우고, 정해진 수행예제를 실천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정승가를 위 한대중결사(의장 만초, 이하 대중결사)와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중심이 돼 이번 하안거를 맞아 처음

시도됐다.

동참자는 스스로 정한 시간에 삼귀의, 수행서원문 염송, 7보선행 등 '기본 수행'과 108배나 108관음염송, 108미소자각, 참선, 사경, 경전 7독 등을 '선택 수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행점검표에 매일 O, △, X로 실천 상황을 기록하고, 수행경험을 도반들과 공유하고 지지스님으로부터 점검도 받는다.

만초 스님은 "전국 사찰 공통의

안거증을 발급해 대외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가 안거 수행결사'는 부산 금천선원(총무 정운),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종), 미타선원(주지 하립), 수도암(주지 일철), 해광사(주지 혜성), 홍법사(주지 심산) 및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등 전국 14개 사찰에서 운영 중이다.

박지원 기자

양지 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